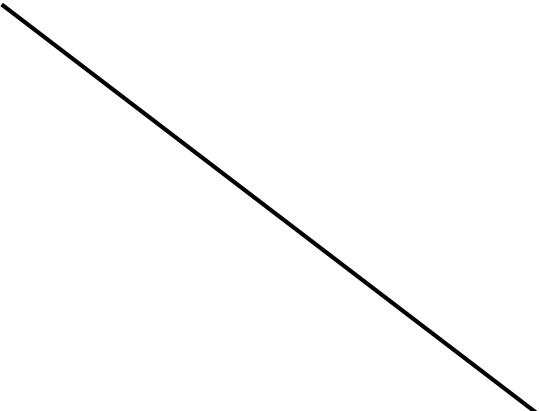


# **독립출판사 설립, 에세이집 출간 및 홍보와 판매**

웃나의수요일 팀 국어국문학과 박수연, 조유나



# 사업자등록 및 출판사 구상



## 출판사 신고 확인증

신고번호 제 2022-000002 호

영청 및 소재지	영 청	나주시요일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박수연
	주 소	

신고연월일 2022년 2월 8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따라 위와 같이 출판사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함

평택시장

---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 111-92-25043

상 호 : 나의수요일

성 명 : 박수연      생년월일 : 1988. 01. 01

개업연월일 : 2022년 02월 09일

사업장소재지 :

사업종류 : ☒ 정보통신업      ☐ 출판업

발급사유 : 신규

발행일자 : 2022년 02월 0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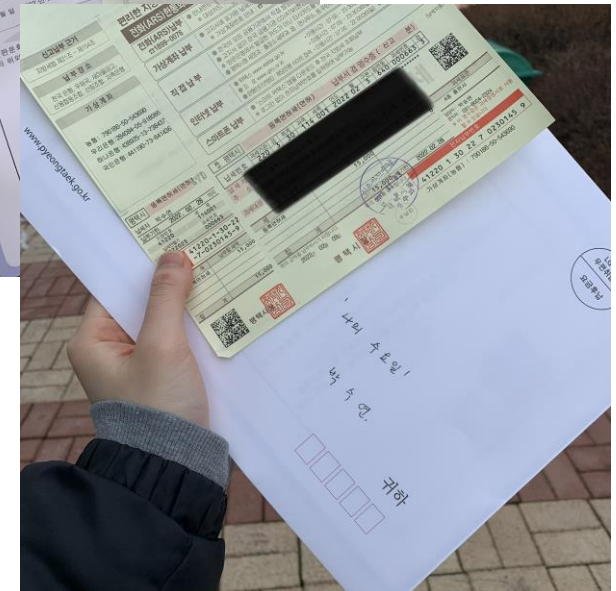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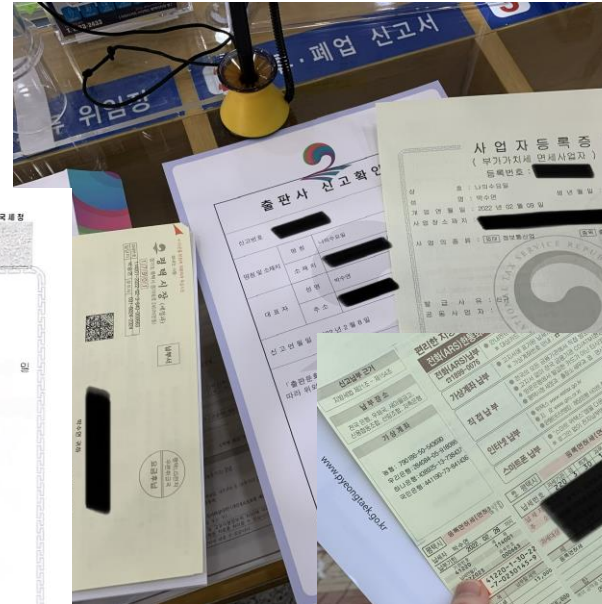
평택세무서장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22년 02월 09일

평택세무서장



# 사업자등록 및 출판사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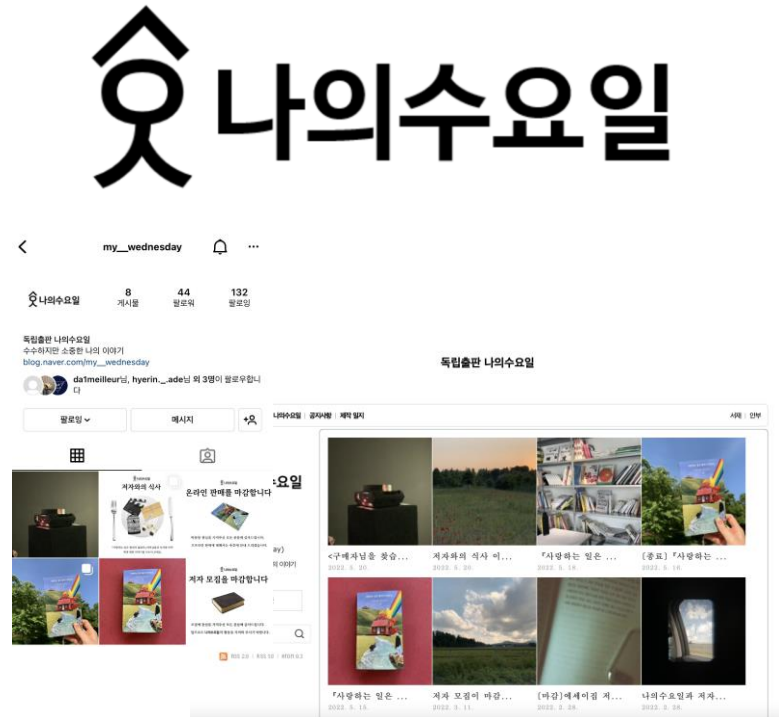
출판사 <나의수요일>은 따뜻미지근한 수요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생 할 때 수요일은 목요일, 즉 인생의 중반부에 들어서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위치는 어떤지 정준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이란 모호함에 놓여 앞으로를 고민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야 하는지, 고심하는 동시에 어떤 모양을 가져야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때에는 내가 가진 특색보다는 사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를 바꿉니다. 내가 아는 '나'와 사회가 원하는 '나' 사이에서 방황하는 정준은 변화한 모습에 만족하기도, 성취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중에는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판사 <나의수요일>은 그러한 '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민해 보일까 하지 못한 이야기, 실어할까 드러내지 못한 모습, 특색없어 보여 자 나를 보여주려 합니다. 정준은 작가가 되어 독자에게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수할 수 있지만 분명 소중한 것일 수

<나의수요일>은 온전히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고자 할 소리 하나하나를 한 데 모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시하려 합니다. 답답했던 숨을 시원하게 내뿜기 위해 <나의수요일>은 존재할

나의 수요일

- 상호 폰트 : 나눔바른고딕
- 기본 바탕 폰트 : 마루 부리
- 포인트 폰트 : 소미체



blog [https://blog.naver.com/my\\_wednesday](https://blog.naver.com/my_wednesday)

instagram @my\_\_wednesday

# 신간 기획회의 및 저자 모집

## 1. 가제목과 부제

-가제목: 자기마음대로소개서 / 골판지상자 속 편린 / 주머니 속 편린 / 고백집 / 직선 고백

-부제목: 나의 000 / 저자 재량. 정하고 피드백

## 3. 예상저자 예비저자

-1순위 저자: 아주대 인문대학 재학생

-2순위 저자: 아주대 동아리, 소학회 학생 (소금꽃, 시사문제강독회, 고슴도치)

## 4. 기획의 배경 및 이유

<기획의 배경>

유투브, 틱톡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노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어나는 수많은 SNS는 과연 정말로 개개인의 진실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는 내가 가진 특색보다는 남에 의해 요구되고, 사회에 필요한 모습의 나만이 표현되고 아닌가?

<기획 이유>

작고 사소한 당당하게 자랑하기 부끄러운 모습이라 편하게 보여주지 못한 개인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이고자 <가제>는 기획되었다. 외부의 잣대에 의해 작고 흔하게만 여겨졌던 나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도 <가제>의 기획 의도이다. 자기 탐구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활동이지만, 특히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이의 탐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직 확실히 자아를 구축하지 못한 정준은 남들이 원하는 모습만을 노출하고 쫓다 원석처럼 간직하고 있던 스스로의 호기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나에 대해 돌아보고 나를 가꾸고 알아가는 것은 다각화되는 사회에서 나의 길을 창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가제>는 현 시대의 저자에게도 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 될 것이다.

## 5. 독자 대상

-16-25세 / 작가와 비슷한 나이대

## 6. 예상 출간시기 및 위험성

-5월 초 예정

<구성>

-흑백: (사진, 그림도 흑백) 저자에게 전달

-글, 그림 형식 자유

-(글의 경우) 문장 스타일: 평어체

-(글의 경우) 저자는 소재목 등으로 글을 세부화할 수 있음

-에세이 내용: <아무튼 에세이> 참고(가능하면 1인 1권 지원)

-에세이의 주제는 구체적인 키워드일수록 좋음

## 7. 에세이 주제 예시

-취미소개 (영화, 운동, 00순례, 패션, 코스메틱)

-사회이슈 (코로나, 올림픽, 혐오분쟁, 제로웨이스트)

-생활방식 (미니멀리즘, 중고거래, 비건, 미라클모닝)

-자유수필

## 1. 가제 및 부제

## 2. 내용요약 및 구성안

## 3. 예상저자와 예비저자

## 4. 기획 배경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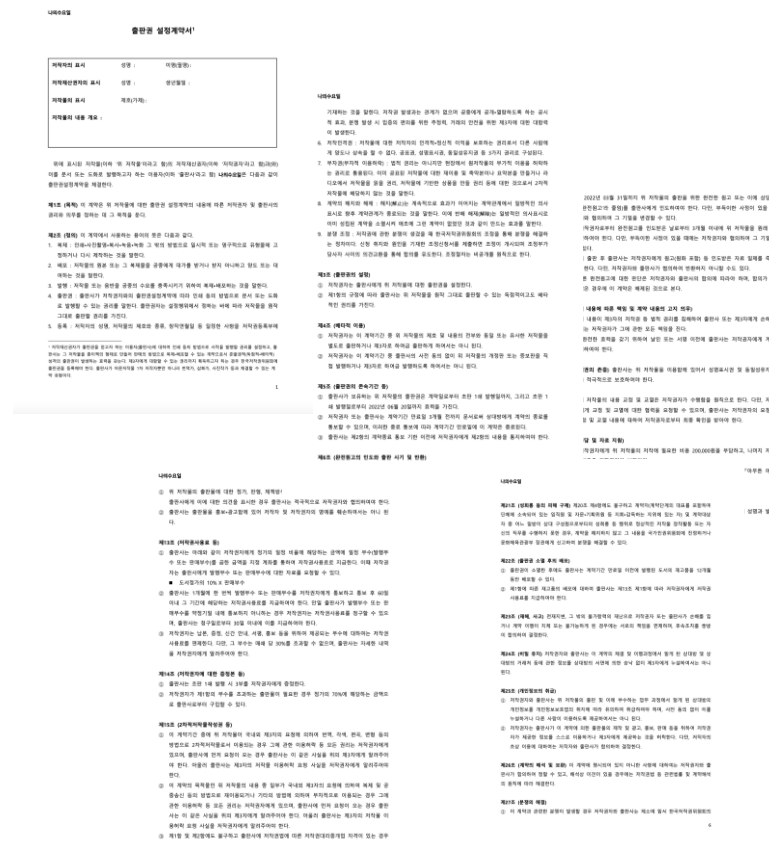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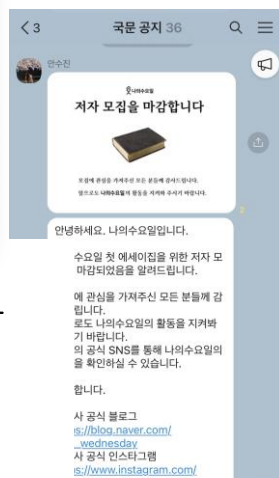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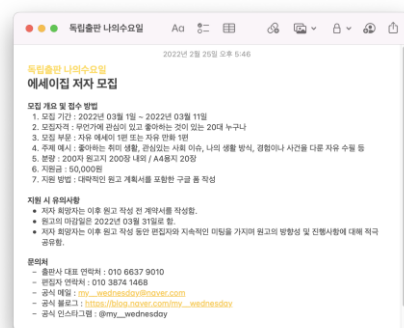
## 5. 대상독자

## 6. 예상 출간시기 및 위험성

## 7. 에세이 주제 예시

## 8. 예상 청탁 저자 및 청탁 구성안

# 신간 기획회의 및 저자 모집





# 교정교열 및 책 디자인

[illegible]

## 저자에게 각 사건들의 의미와 집필의 의의

[illegible]

### 수업 내용

**1. 수열의 개념**

수열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된 수들의 집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연수, 짝수, 홀수 등은 모두 수열이다.

수열은 일반적으로  $a_1, a_2, a_3, \dots$  또는  $\{a_n\}$ 로 나타낸다.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등차수열:  $a_n = a_1 + (n-1)d$
- 등비수열:  $a_n = a_1 \cdot r^{n-1}$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등차수열의 합은  $S_n = \frac{n}{2}(a_1 + a_n)$ 로 구할 수 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 어떤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인 등차수열을 생각해 보자. 이 수열의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차는 얼마인가?

풀이: 등차수열의 공차를 구하면 된다.  $d = 3 - 1 = 2$ 이다.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은  $a_5 = 1 + (5-1) \cdot 2 = 9$ , 여섯 번째 항은  $a_6 = 1 + (6-1) \cdot 2 = 11$ 이다. 둘의 차는  $11 - 9 = 2$ 이다.

정답: 2

### 수열 문제 풀이 전략

- 문제를 잘 읽어라! 조건과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라.
- 일반항을 구하라! 수열의 규칙을 찾아라.
- 공차나 비를 구하라!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인지 확인하라.
- 합을 구하라! 필요한 공식이나 방법을 활용하라.
- 검증하라! 구한 답이 문제에 맞는지를 확인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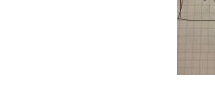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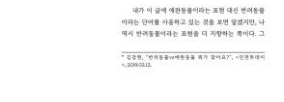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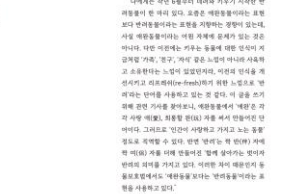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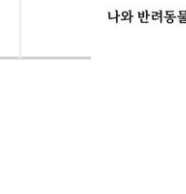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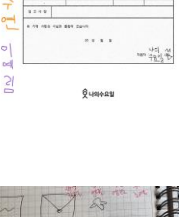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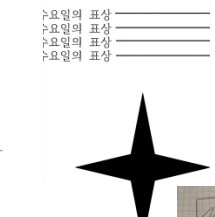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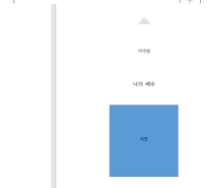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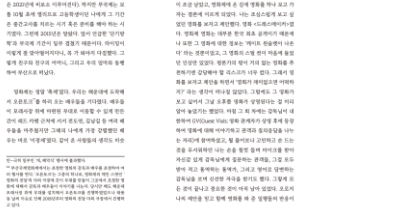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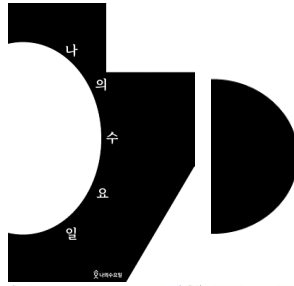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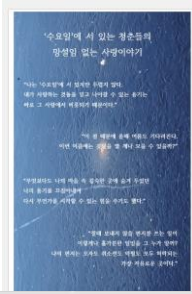
[illegible][illegible]

## 나와 반려동물

The screenshot shows a web browser window with the title '나의 반역분들' (My Rebels). The page content is a list of names and dates, likely a memorial or a list of people involved in a historical event. The browser's address bar shows a URL starting with 'http://www.kore...'. The page has a simple layout with a title and a list of entries.

[illegible][illegible]

# 교정교열 및 책 디자인



# ISBN과 책 인쇄 및 납본

서지정보유통지원 시스템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발행자번호 신청 이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6자리 발행자번호가 지정되었습니  
유통지원시스템>ISBN>도서번호  
를 신청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출판  
합니다"

서지정보유통지원 시스템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입니다.

신청하신 한국도서번호 통보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791197856402(03810)

사랑하는 일은 물리지 않았다 / 저자 : 이아람;저자 : 차다혜;저자 : 이에인;저자 : 유수연;

위 한국도서번호가 한국서지표준센터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확인 후 출판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확인 및 ISBN 바코드 다운로드 바로가기](#)

nl.go.kr

### 바코드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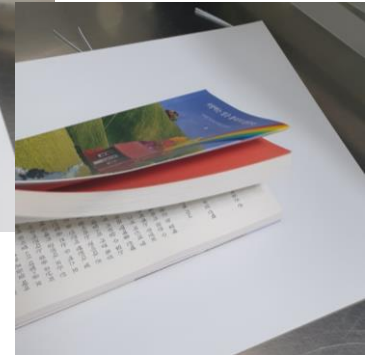
다운로드 도움말

날권 ISBN	979-11-978564-0-2 (03810)
세트 ISBN	
바코드	9791197856402
크기 선택	80% <b>100%</b> 200%

10,000  
03810  
9 791197 856402  
ISBN 979-11-97856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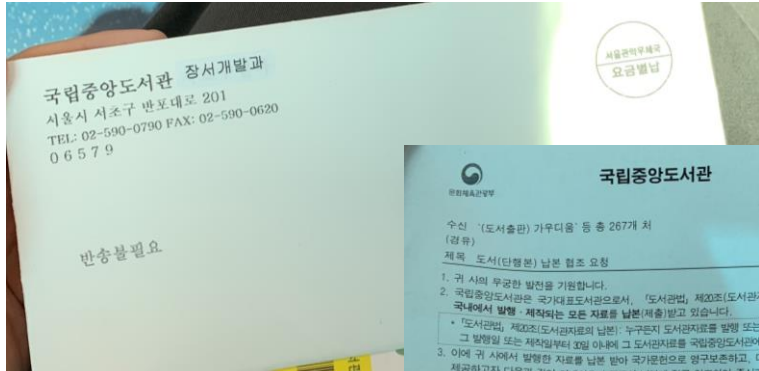
다운로드 ☒ EPS ☐ PDF ☐ AI

다운로드 인쇄





# ISBN과 책 인쇄 및 납본



**국립중앙도서관**

수신 (도서출판) 가우디움 등 총 267개 저 (권류)

제목 도서(단행본) 납본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기한 발행을 기원합니다.

2.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발행·제작되는 모든 자료를 납본(제출)받고 있습니다.

가.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3. 이에 귀 사에서 발행한 자료를 납본 받아 국가보안으로 영구보존하고, 대국민 자료이용 서비스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료의 납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본대상: 도서(단행본)

나. 납본 부수 및 방법: 각 2부 / 우편, 방문

다. 제출서류

- 도서관자료 납본서·보상청구서
- 종이책: 전자게산서(bi11@ca21.or.kr) 또는 게산서(공급받는자: (사)대한출판문화협회)
- 전자책: 전자게산서(onsu@2020korea.kr) 또는 게산서(공급받는자: 국립중앙도서관)
- 라. 납본처 주소: (우)060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자료보존센터
- 문의: (종이책) 02-590-0609, 0750, 6396 / (전자책) 02-590-0613, 6224

4. 납본제외자료, 게산서 발급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확인 함 그 밖의 납본 관련사항은 ISBN·ISSN·납본시스템(http://nl.go.kr/nao/) > 납본 > 단행본 납본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서관자료 납본서·보상청구서 1부, 끝.

**국립중앙도서관**

주무관 전택현 사서사무원 (재)2022.5.11. 장서개발과장 전영

합조자 김수영

시정 장서개발과-2177 접수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21조, 제 17조>

**[V] 도서관자료 납본서**  
**[V]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본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하되, 책상면 의무권 1권은 납본(무지) 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가 적지 않습니다. (필독)

납본(또는 주권) 번호		주권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온라인 자료 제공자)		사업자등록번호: 111-92-25043		010-3879-1469					
주 소 (또는 소재지)		거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경기도 파주시 대곡동 139 102동 2302호		기업은행		587-050132-01-01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도서관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	저작자명	발행처명 (또는 제공자명)	발행 연월일	자료형태	시기 또는 참가(원/1부)	수량	보상가(원)
1	979-11-91854-0-2	사랑하는 일은 돌지 않았다	이아람, 라다첸, 이연민, 유수영	나희수	2022. 05. 11	도서	10,000	2	10,000
총합계		1 종		2 책( 원, 간)		총보상가 총액(원)		10,000 원	

[ ] 위의 도서관자료를 「도서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본합니다.

[ ] 위의 같이 납본 또는 제공한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합니다.

(청구권) 납본의무지(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2022년 05월 25일

박수영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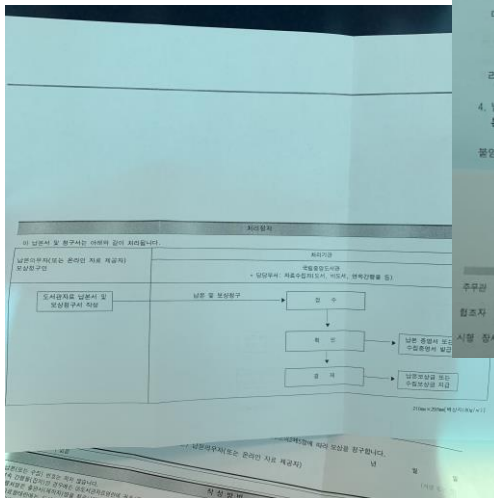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장부사유	일련	작성방법
장부사유	일련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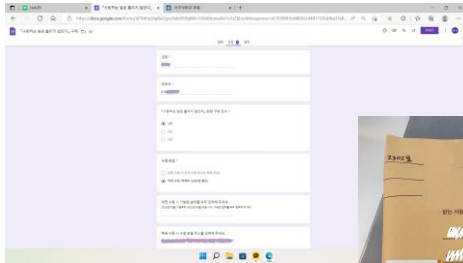
1. 납본(또는 주권) 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2. 연속 간행물(간지)인 경우에는 연속간행물등록번호(연간/월권 및 발행년도)를 함께 적습니다.
3. 발행처명(출판사)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도서관청구사항은 도서, DVD, CD, 음반, CD-ROM, 전자책, 전자저널, 텍스트(HTML), 동영상(MPEG), 서문(HTML), 이미지(JPG) 등을 적습니다.
5. 주 소(주 소)는 청구하려는 납본의 도서관이나 제공자 온라인 자료의 판매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연속간행물(전자책)은 권호/호권 단위로 납본 당시의 가격을 적습니다.
6. 복보상기간에는 납본한 도서관자료나 제공한 온라인 자료 중 열람을 1회씩 시기 또는 권을 적습니다.
7. 복보상가 총액에는 납본한 권의 수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게산서(도서) 또는 제공게산서(비도서)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등록번호,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및 보상가 총액을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책장지 80g/㎡)



# 온·오프라인 판매 및 저자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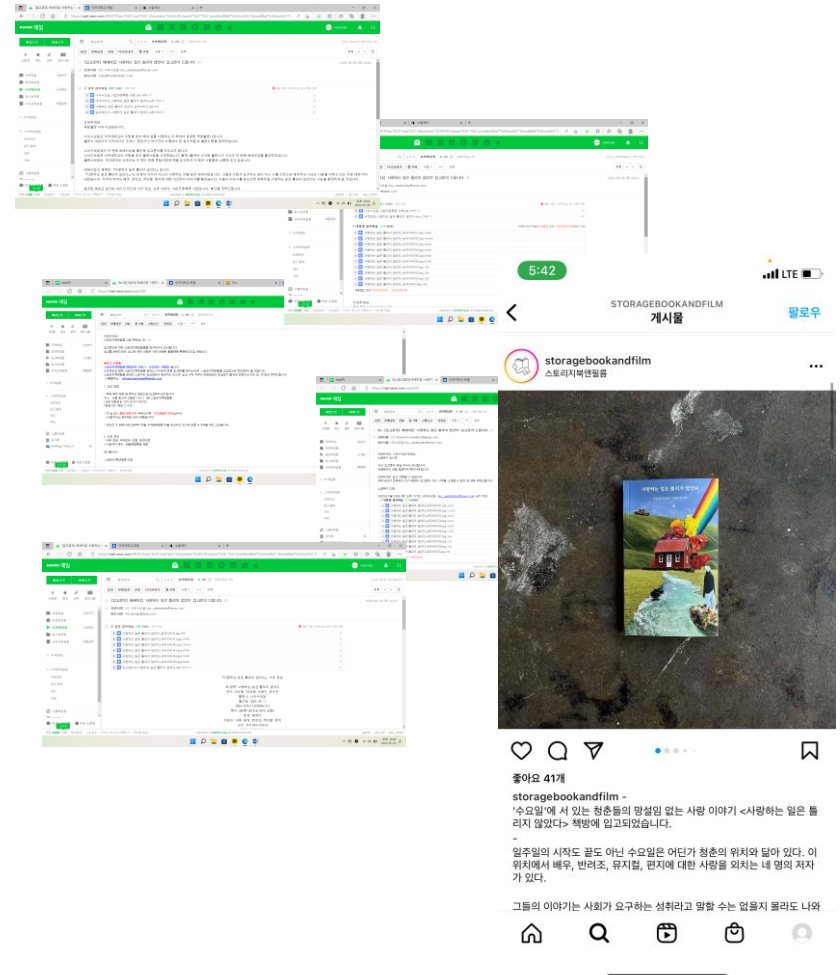
온라인 판매를 마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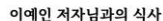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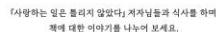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추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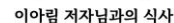
구매자	권수	책에 또는 전달	입금 확인 문자 보내기	책에 완료 문자 보내기
정수	1	책에 O	O	O
소희	3	책에 O	O	O
차민	1	책에 O	O	O
별준	1	책에 O	O	O
김희	1	책에 O	O	O
이민	1	책에 O	O	O
김민	1	책에 O	O	O
이민	1	대면 O	O	O
정민	1	대면 (6월 3일)	O	O
이민	1	대면 O	O	O
윤민	10	책에 (5월 20일) O	O	O
이민	1	책에 (5월 20일) O	O	O
이민	1	책에 (5월 20일) O	O	O
김민	3	책에 O	O	O



저자와의 식사



「시간을 병 속에 담을까?」를 써 주신  
이예인 저자님과 식사하는  
'05월 23일 월요일 18시 저녁식사'입니다.



「당신이 있어 줬기에 나는 내가 된 거야」를 써 주신  
 이아림 저자님과 의 식사는  
 '05월 30일 월요일 19시 저녁식사'입니다.



2. 나의수요일 에세이집 출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인수승용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 주셔서 해당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안이 담긴 기록을 보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끝없는 갈망에서 해 보고 싶다고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우리 주위로 좋은 총장과 좋은 팀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배우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간직한 목지를 보내려 한 것도요 그리고 같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내 인생의 모든 것> 영화를 다룬 것 이후에 저의 배우 역할 역을 한 번 정리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 유호선 씨를 찾았던 것 같군요.

3. 가장 최근에 보신 영화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illegible]

영화관에서 본 건 서울에서시나미다에서 상영한 알바스 **키아로** : 나로 무작정 호텔에서 기다렸는데 그  
한가지 문제의 두가지 해답, <스승에 대한 감사>, <첫번째> 가 좋아하는 오아시스와 노엘 **결론**  
습니다. 이것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여전히 아시아영화를 ! 'stop crying your heart out'과 노엘  
었기 때문이에요 (후후)~ 좋아하는 앨범 역시 많기 어렵지만

4. 완성된 하나의 긴 글을 써 보시니 어떠셨나요? 에세이 집 이 러고 선포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  
점이 국어입니다.

어떤 사람의 주제를 글을 완성했다는 성취에 뿌듯함이 있고요. 비록 짧은 것 같긴 한데 한 번이라도 성취하는 게  
 저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써야 하는 거잖아요. 제 마음이 ! 물론 못한다고도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만 사  
 람들은 성취에 약한 게 부끄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를 ! 아들 미용가상 팀의 모든 저의 진정  
 호취지마! 제 거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어디까지 보여줘야 진정할지. 저를 미용가상 팀의 모든 저의 진정  
 아! 하지는 않음의 선을 정하는 게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용가상 팀의 모든 저의 진정

자라라 침묵을 잃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특히 책으로 커뮤니티 비프 리퀴드스트시내마에 찍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나 데 소개하지 않은 또 다른 영화제 참석

허허 놀라웠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  
그해경, 임원직을 하면서, 저는 이

구체적 발표하고 한다면 저는 이 어  
 확실하 고만하고 찾다가 결국 가을  
 자이신 오우정 교수님을 모시고  
 광명원 사함에 있어 어떤 경외감을  
 내음들 을 보고 참관했을 좋아하게  
 하는(사실 광명으로 전기를 썼지만  
 생각 하나로 외국어 고등학교에, 참  
 중국 중국 상하이에 유학까지 갔었다  
 람의 인생에 지라도 은 영향을 미쳤

[illegible]

정확하니 편해도 그렇게 민폐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제  
 노래는 너무너무너무 많지만 마음이 힘들 때 오아시스의  
 'The Dead in the Water'를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 하나 알려 보자면 Definitely Maybe(DM)입니다. 이 별

정하는 열병이랍니다.)<sup>4</sup> 더 흥풍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했죠. 도대체 흥풍영화는 어떤 매력을  
게도 많은 한국인들의 인생을 결정 내어준가. 그런 국민증을 가지고 천주

수 있었죠? 왜 매키니  
 도 많은 한국적인 환경을 같이 만들었고, 그 공군을 가지고 커다라  
 었. 그리고 자꾸만 밴드  
 내력을 문화적 측면이 있고 싶고 있다  
 는 문화이력이. 비서: 게 시작하면, 제가 나를 실게 한 것은 영양이라는 문화라는 쓰레 만들  
 사할이만 죽 만 러 2019, 2020년 서울 국제 영화제 에서 자 본 문 화 를 한 것 이 2020 년 에  
 문 영사하고 에 빠 르 고 대 학 수 이 도 를 세 영 관 안 에 상 두 르 는 것 이

필요와 소통하는 일을 할것임요. 2020년엔 어디서든 코로나 19 첫 해로  
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참 찜시 사라 나간다고 짐을  
을 나서면서 곧 있으면 영화제에서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

에피소드야구요.

[illegible]

고 잊길래 이별  
프 러랜스 시

리프 리프스트 시

좋은 이야기로 짧  
경험인데요, 저는  
나지<sup>가</sup>라고 혹시  
리프 매니저(설명

나지기 교육이 줄  
는데, 그렇게 짧  
그 짧은 순간에

이하고 있는 것은

코카즈 감독님이  
화인상을 받기로  
감독이 참여하시  
매진이 된 거에  
정장 매력을 해야  
한 5시간 출발을  
한 사상까지 아빠  
는 시간에 영화의



# 감사합니다

웃나의수요일 팀 국어국문학과 박수연, 조유나

